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에 대하여*

김 동 현

【국문요약】 진리 동일론자들은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한다. 우선, 본고는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적절할지를 검토한다. 필자는 진리 동일론자들이 주장하는 동일성 관계를 사소한 관계와 사소하지 않은 관계로 분류한 다음, 사소한 동일성 관계로 이해한 동일론 논제가 왜 진리 동일론자들의 주장이 될 수 없는지를 논변할 것이다. 이어서,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에 따른 견해를 줄리언 도드의 분류를 따라 다시 강경한 동일론과 온건한 동일론으로 구분한 후, 전자의 동일론이 그 자체로 비일관적인 견해가 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동일론자들에게 남겨진 대안인 온건한 동일론을 진리 축소주의와 비교해야 하는 이유를 해명하고, 그 비교로부터 온건한 동일론자들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지를 귀결로서 이끌어 낼 것이다. 동일론자들이 그 중 한 쪽을 택하면 축소주의보다 온건한 동일론을 더 선호해야 할 정당성은 얻어지지 않는 반면에, 다른 한 쪽의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겨지는지를 서술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이 남겨진 과제가 지닌 한계와 전망을 평가할 것이다.

【주요어】 진리 동일론, 도드, 혼스비, 사상, 축소적 진리

1. 들어가는 말

도드(Julian Dodd)와 혼스비(Jennifer Hornsby) 등이 주장하는 진리 동일론(the identity theory of truth)에 따르면, 진리담지자는 사실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¹⁾ 예를 들어 진리담지자가 명제일 때, 참인 명제는 곧 그것이 상응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²⁾ 진리 동일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사실은 참인 사상(Thought)이다.”³⁾라는 프레게의 언명과 초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지만, 프레게가 진리에 대해 동일론적 견해를 취했던 것은 아니다. 진리에 관한 프레게의 명시적인 서술인 “용어 ‘참’의 내용은 독자적이며 정의 불가능하다.”⁴⁾를 어떤 두 대상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서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다만 프레게가 진리 대응론을 비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의 주된 논거는 진리담지자와 진리실현자라는 서로 다른

1) 다만 이 주장을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가 동일하다.”는 주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은 그 자체로도 형용모순일 뿐 아니라, 진리확정자의 존재 혹은 진리확정(truthmaking) 관계에 대한 승인을 불가피하게 전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바로 그 전제이다.

2) 맥도웰은 진리담지자를 ‘사상(thinkables)’이라고 명명한다. 맥도웰이 이 용어를 통상적인 용어인 ‘명제’ 혹은 프레게의 ‘사상(thought)’ 대신에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용어 ‘명제’와 ‘사상’이 맥락에 따라 사상이 아닌 다른 것 특히 뜻이 아닌 지시체가 이루는 구조를 통해 정의되는 러셀의 명제 개념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명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 명제는 사실과 동일성 관계가 아닌 진리확정 관계에 놓이는 것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도웰의 ‘사상’과 혼스비의 ‘명제’는 모두 프레게의 ‘사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읽어야 한다. (Gaskin, 2016, 4절.) 적어도 본고의 논의 내에서만큼은, 동일론자들이 ‘명제’라는 용어로 사상 즉 **문장의 뜻을** 가리킨다는 것은 맥락상 분명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진리담지자를 ‘명제’ 또는 ‘사상’으로 고정할 것이다.

3) Frege(1918), p. 342.

4) Ibid, p. 327.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 사이의 일치를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⁵⁾ 이 점에서 프레게의 견해는 동일론자들의 동기와 일정 부분 겹치는 면이 있다.⁶⁾

언급한 것처럼 진리 동일론은 진리 대응론에 대한 반박 논제이지만, 동일론자들이 진리 대응론의 주장 가운데 정확히 어느 지점을 반박하려 의도하는지는 먼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탈인용도식의 수용과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는 사실과 부합한다는 직관은 수용 가능한 진리 이론이라면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진리의 공통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만약 진리 동일론이 이 직관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진리에 관한 적절한 견해가 될 수 없을 것이다.⁷⁾ 대응 직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진리 대응론에서는, 우리의 사고로부터 독립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사고를 참인 것으로 ‘만들며’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지식이나 검증을 초월한 영역에 있다고 주장된다.⁸⁾ 러셀의 대응론에서는 명제와 사실은 같은 구조를 지니는 반면에, 오스틴의 대응론은 진리를 진술, 문장, 사태, 그리고 사태의 유형 사이의 4항 관계로 분석한다.⁹⁾ 암스트롱과 도드는 모든 참인 담지자는 그것과 구별되는

5) Ibid, pp. 326-327.

6) “... 진리 동일론의 존재 이유는, 사실의 본성에 관해서 진리 대응론이 범한 착오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Dodd, 2008, p. 120.)

7) 예를 들어 진리 대응론처럼 진리 개념을 정의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데이빗슨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리는 세계가 있는 방식과 대응한다. 이를 서술하는 직설적이면서도 오도적이지 않은 어떠한 방법도 없다.” (Davidson, 1983, p. 139.) 대응론을 포함한 전통적인 진리 이론을 모두 거부하는 호리치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옹호하는 최소주의는] 진리가 - 어떤 의미에서는 - **실로** 사실과 대응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진술들은 그것의 참을 실재의 본성에 빚진다는 것을 최소주의는 인지한다.” (Horwich, 1990, p. 104.)

8) Engel(2002), pp. 14-15

9)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Kirkham(1995), pp. 120-130을 참조.

진리확정자를 가지며 그 진리확정자의 존재가 그 담지자의 참임을 필함(entail)한다는 것이 진리 대응론의 핵심 논제라고 정리한다.¹⁰⁾

이후의 논의를 통해 보다 분명해지겠지만, 진리 동일론의 핵심은 진리가 3항 관계라는 대응론의 구도를 거부하는 데 놓여 있다고 보아야 적절하다. 대응론의 구도에서 진리는 진리담지자, 진리확정자,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성립하는 대응이라는 관계, 이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해 진리 동일론은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관계를 동일성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대응 관계를 탐구 대상 목록에서 소거한다. 그리고 이는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를 별도의 이론적 개념으로 상정하여 각각 고찰해야 할 필요도 함께 일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동일론은 진리 대응론이 말하는 진리의 세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적어도 둘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거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진리 대응론과 대립된다.

본고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진리담지자와 사실이 동일하다는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둘째, 적절한 방식으로 이해된 진리 동일론을 진리 축소주의와 비교한다. 필자는 그에 앞서서, 왜 그 두 견해를 비교선상이 올려놓아야 하는가의 이유를 해명할 것이다. 셋째, 진리 동일론과 축소주의 간의 비교로부터 도출되는 귀결을 제시한다. 그 귀결이란, 동일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축소주의보다 온건한 동일론이 더 선호되어야 할 정당성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택하는 경우, 동일론자들에게 어떤 흥미로운 문제들이 해결 과제로 남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¹⁰⁾ Dodd(1999), p. 230.

2. 세 가지 진리 동일론

“참인 명제는 사실과 동일하다.” 는 논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 그 주장을 이해하면, 이 논제는 진리에 관해 우리에게 흥미로운 무언가를 거의 말해주지 않는 당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명제를 세계에서 진리값으로의 함수로 간주한다면, 명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는 우리 세계에서 참의 진리값을 산출하는 함수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참인 명제와 한국의 수도가 실제로 서울이라는 사실이 서로 동일하다는 주장은, 우리 세계에서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참의 진리값을 산출한다는 것과,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 사이에는 어떤 중요한 뜻에서의 차이도 없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이 주장이 사소한 이유는, 동일성 관계가 주장되고 있는 양쪽 항의 표현들이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 항 사이의 유일한 차이라면 ‘참’ 이라는 표현이 한 쪽 항에만 등장한다는 것 외에는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흥미로운 차이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문법을 어기지 않는 한, 진리 표현의 제거는 내용에서 어떠한 손실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이해된 논제를 진리 동일론자들이 의도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동일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에 관한 사소한 동어반복이 아닌, 참이라는 본체적(substantial) 속성이 귀속되는 어떤 담지자가 사실과 동일하다는 주장일 것임에 틀림없다.¹¹⁾ 이렇게 이해된 “진리담지자는 사실과 동일하다.” 는 주장이 사소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가 참이 된다는 의미론적인 담론

11) “동일성 주장은, 동일한 대상들에 관한 본체적인 무언가가 말해지지 않으면 공허해질 위험을 안는다.” (Dodd, 1999, p. 225.)

과,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실제로 성립한다는 세계 안의 대상과 속성의 배열에 관한 존재론적인 담론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의미론적 존재자인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참인 명제, 그리고 세계 안에서 특정한 대상과 관계가 실제로 성립한다는 사실, 이 둘 사이의 동일성은 사소한 관계일 수 없다.

이 사소하지 않은 두 번째 이해 하에서 진리 동일론은, 참인 명제와 동일시되는 사실의 본성을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다시 강경한 동일론과 온건한 동일론으로 분류된다.¹²⁾ 강경한(robust) 동일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경한 동일론자들은 사실을 세계 안에 존재하는 대상과 속성의 구성물로 이해한다. 즉 강경한 동일론에서 사실은 명제의 구성요소에 각각 상응하는 대상들과 속성들의 특정한 배열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참인 명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각각이 지시하는 대상과 속성들 사이에서 실제로 성립하는 복합 구조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 둘째, 강경한 동일론은 진리 대응론과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와 사실 사이에 언어-세계 관계(worldly relation)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진리 대응론과 다른 점이라면 그 언어-세계 관계가 대응 관계가 아닌 동일성 관계라는 것이 차이이다. 그래서 도드는, 강경한 동일론의 견해 하에서 사실은 지시체의 영역(realm of reference)에 속한다고 정리한다.

이에 반해 온건한(modest) 동일론에 의하면 사실은 지시체가 아닌 뜻의 영역(realm of sense)에 속한다. 그들은 사실과 참인 사상(true thought)이 서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사상이란 지시체들이 제시되는 방식(mode of presentation)을 말한다.¹³⁾ 이에 따라, 강경한 동일론과 달리 온건한 동일론자들은 사

12) 이 구별은 Dodd(2008), pp. 111-114를 따른 것이다.

13) Frege(1892), p. 152 참조.

실을 세계 안의 대상으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실과 참인 명제 사이의 동일성 관계도 언어-세계 관계가 아니라고 본다.¹⁴⁾ 온건한 동일론이 강경한 동일론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사실을 세계 안에 위치한 혹은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온건한 진리 동일론은 소박한 형태의 관념론 즉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만이 참인 모든 것이라는 주장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세상 안에서 성립하는 수많은 사실들은 우리의 파악이나 사고 활동 혹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심적 작용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명제의 참 또는 거짓임이 우리의 인식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온건한 동일론자들도 부정하지 않는다.¹⁵⁾ 그들은 단지 참인 문장의 뜻과 사실 사이에 존재론적 간극이 있다는 생각을 부정할 뿐이다.

이러한 분류 하에서, 도드는 강경한 동일론은 동일론자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으며 온건한 동일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된 이유는, 세계 안의 지시체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즉, 사태)를 명제와 같다고 전제하면 명제가 거짓이 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명제는 그것이 사태와 동일한 한 자동으로 참이 되어버리고 만다. 물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¹⁶⁾ 하지만 이 비판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필자의 견해로는 강경한 동일론은 이미 그 자체로 비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명제는 모두 참이다.

(P1) 서울은 과천의 북쪽에 인접한다.

14) “사상은 외부 세계 안의 대상도 아니며 관념도 아니다.” (Frege, 1918, p. 336.)

15) Frege(1918), pp. 342-344 참조.

16) Dodd(2008), pp. 113-114.

(P2) 과천은 서울의 남쪽에 인접한다.

(P1)과 (P2)는 서로 다른 명제이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P1)과 (P2)의 참에 관련되는 바로 그 지리적 사실을 단일한 사실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P1)과 (P2)가 동일성 관계를 이루는 사실을 강경한 동일론과 온건한 동일론의 관점에서 각각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강경한 동일론에 의하면, 도시의 이름인 ‘서울’과 ‘과천’의 두 지시체 그리고 그 지시체들 각각이 지니는 공간적 좌표라는 속성의 복합 구성물이 사실에 해당할 것이다. 이 복합 구성물을 Comp라고 하자. 반면에 온건한 동일론에 의하면, 그러한 지시체들이 제시되는 방식이 사실에 해당하는데, (P1)과 (P2)의 뜻이 다름에 따라서 지시체들의 제시 방식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이 각각 있다. 그 각각을 Mod₁과 Mod₂라고 하자. 동일성이 이행적인 관계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전제이다. 그리고 우리는 (P1)과 (P2)가 서로 다른 명제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P1)과 (P2) 모두 Comp와 동일성 관계를 이룬다고 전제하면 곧바로 비일관성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P1)과 (P2)는 서로 동일하지 않은데, (P1)과 (P2) 모두 단일한 Comp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P1)은 Mod₁과, (P2)는 Mod₂와 동일하다고 전제하면 그와 같은 비일관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begin{array}{ll}
 (P1) = \text{Comp} & (P1) = \text{Mod}_1 \\
 \# \quad \parallel & \# \quad \# \\
 (P2) = \text{Comp} & (P2) = \text{Mod}_2
 \end{array}$$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P1)과 (P2)가 서로 다른 명제라는 전제에 의존했다. 그렇다면 강경한 동일론자들은 (P1)과

(P2) 사이의 비동일성을 거부함으로써 비일관성을 피할 수 있다고 반론할 것이라고 혹자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이 반론할 강경한 동일론자가 과연 실제로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도드에 의해서) 강경한 동일론자로 분류되는 철학자조차도 진리담지자는 사상 즉 문장의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드는 혼스비의 동일론이 강경한 동일론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혼스비는 자신의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고에서 나는 용어 ‘사상(thinkables)’을 보다 친숙한 ‘내용’, ‘명제’, 또는 ‘사상(Thought)’ 중 어느 것이라도 대신하게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¹⁷⁾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도드가 공격하는 강경한 동일론이라는 철학적 견해가 과연 실체가 있는 견해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음의 세 논제를 모두 받아들이면 비일관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 (a) 사실은 지시체의 영역에 속한 복합체이다.
- (b) 진리 담지자는 사상이다.
- (c) 사실과 참인 사상은 동일하다.

도드의 분류 하에서 강경하든 온건하든 진리 동일론자들은 모두 (b)와 (c)를 명시적으로 승인하므로, 관건은 혼스비와 같이 도드가 강경한 동일론자의 혐의를 씌우는 철학자들이 실제로 (a)를 승

¹⁷⁾ Hornsby (1997), p. 2. 가스킨도 혼스비와 맥도웰이 사실을 지시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도드의 견해는 부적절하다는데 동의한다. (Gaskin, 2016, 4절.)

인하는지 혹은 (a)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도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도드에 따르면 그 주된 이유는 혼스비의 이론이 사실을 세계 안에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혼스비의 동일론은 사실들의 총체가 세계를 구성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기초하므로 그런 혼스비에게 세계는 “우리가 지향하는(about) 것들의 세계”에 해당한다고 도드는 주장한다.¹⁸⁾ 물론 비트겐슈타인의 논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그 나름대로 중요한 쟁점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참인 사상으로서의 사실들이 세계를 구성한다는 혼스비의 주장과 그에 대한 도드의 비판에만 주목해 보자. 도드가 혼스비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예컨대 이 책이 붙다는 참인 사상이 세계 안에 위치한 구성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책 자체는 세계 안에 위치한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내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혼스비의 이론이 사실을 세계 안에 위치시키는 한 혼스비의 이론은 강경한 동일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드가 내세우는 요지이다. 반면에 도드가 옹호하는 형태의 온건한 동일론에서는, 사실은 세계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총체가 곧바로 세계에 해당한다.

세계는 (글자 그대로) 사고할 수 있는 세계(thinkable world)이다. (...) 온건한 동일론은 사고와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18) Dodd(1999), p. 228. 이러한 비판의 기저에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다음 구절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놓여 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Wittgenstein, 1922, § 1.1.) 도드는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혼스비와 맥도웰이 이해하는 것처럼 세계가 사상들의 총체라는 주장이 아니라, 사태의 구성요소인 대상들의 구성물이라는 주장으로 이해한다.(Dodd, 2008, p. 181.) 만약 도드의 해석이 옳다면, 『논리-철학 논고』의 구도에 기초한 동일론은 강경한 동일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 Dodd(2008), p. 181.

없다. 왜냐하면 만약 온건한 동일론이 옳다면, 사실들은 세계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건한 동일론은 사실들을 그저 지시체의 영역으로부터 뜻의 영역 쪽으로 이전시킬 뿐이다. 마음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관해 말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²⁰⁾

혼스비는 대응론자들이 저질렀던 실수 [즉, 사실들을 세계 안에 위치시키는 실수]를 반복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혼스비가 (a)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도드의 주장은 여전히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스킨이 지적하듯이, 설령 도드의 주장대로 뜻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들의 총체가 곧 세계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뜻은 지시체가 제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뜻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이란 다른 아닌 세계 안의 지시체들이 제시되는 방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²⁾ 가스킨의 지적이 옳다면, 혼스비의 동일론이 사실을 세계 안에 위치시킨다는 도드의 지적이 설령 적절하더라도, 세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시체들이 존재한다는 귀결은 혼스비와 도드의 동일론 양쪽 모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시인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도드가 (a)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혼스비 역시 똑같이 (a)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

앞서의 살펴본 것처럼, 애당초 (a)를 받아들이는 형태의 진리 동일론은 비일관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다면 (a)를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동일론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논의의 의의가 없을 것이다. 동일론자들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논의는 (a)를 거부하면서 (b)와 (c)를 받아들이는 동일론, 즉 도드가 분류하는 뜻에서의 온건한 동일론을 이치에 맞으

²⁰⁾ Dodd(1999), p. 228.

²¹⁾ Ibid, p. 231.

²²⁾ Gaskin(2016), ch. 4.

면서도 진리에 관한 다른 견해들보다 더 나은 견해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논의여야 한다.

3. 온건한 동일론과 축소적 진리

동일론의 논제를 사소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이론이 될 수 없으며, 다른 한 편으로 그 논제를 강경한 동일론의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 됨을 2절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진리 동일론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온건한 동일론뿐이다. 그렇다면 온건한 동일론의 주장, 즉 진리담지자는 참인 사상으로서의 사실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나타내야 적절한 것인가?

2절에서 제시한, 강경한 동일론이 비일관적이라는 논증을 잠시 돌이켜 보자. 그 논증은 (P1)과 (P2)가 사상이라는 가정 하에서, 그 둘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명제 (P1)과 (P2)를 사상이 아니라 가능세계에서 진리값으로의 함수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P1)이 참인 모든 가능세계에서 (P2)는 필연적으로 참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P1)과 (P2)는 동일한 명제가 된다. 하지만 만약 (P1)과 (P2)가 동일한 함수라면, 그리고 만약 (P1)과 (P2)가 각각 Mod_1 과 Mod_2 와 동일하다면, 우리는 Mod_1 과 Mod_2 가 동일하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온건한 동일론이 논의하는 명제는 외연적으로가 아닌 내포적으로 다시 말해 그것의 진리값이 아닌 내용을 통해서 개별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용을 통해 개별화된 참인 명제가 그에 상응하는 사실과 동일하다는 논제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논제를, 참인 명제는 사실(즉 자기 자신)에 기반(grounding)한다는 주장으

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혼스비가 상술하듯이 기반 관계는 몇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는 난해한 개념이다.²³⁾ 그러므로 기반 관계를 도입하는 것은, 온건한 동일론의 주장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둘째로, 로드리게스-페레이라는 온건한 동일론이 기반 관계를 포함하면 어떻게 곤란에 직면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논증한다.²⁴⁾ 참인 사상은 사실에 기반한다는 전제와, 사실은 참인 사상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면, 이로부터 참인 사상은 자기 자신에게 기반한다는 귀결이 얻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의 참은 그 명제 자체에 기반하기 때문에, “장미는 붉다.”라는 명제의 참이 실제 세계에 있는 장미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명백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온건한 동일론과 기반 관계는 함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온건한 동일론자들은 참인 명제가 사실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기반 관계를 끌어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제시는, 진리담지자와 사실이라는 이질적인 대상 사이의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 관계를 담아내야 한다. 그렇다면 아마도 유력한 후보는 다음의 (D)일 것이다.

(D) 명제 $\langle p \rangle$ 는 p 라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D)가 온건한 동일론자들에게 유망한 선택지인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온건한 동일론이 사소해지지 않으려면 그것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 사이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이론이어야 하지만, 그러한 동일성 관계를 문법

²³⁾ Hornsby(2008), p. 35.

²⁴⁾ Rodriguez-Pereyra(2008), p. 30.

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동일성을 나타내는 기호 ‘=’의 양변에 어떤 참인 사상을 가리키는 이름 그리고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이름을 각각 위치시키면,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문법에는 맞을지는 몰라도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 문장이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 점에서 (D)는 진리 표현을 포함하면서도 온건한 동일론자들이 원하는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 관계를 문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유망한 후보이다. 둘째, 탈인용 도식은 진리에 관한 모든 수용 가능한 견해가 공유해야 하는 진리의 최소 공통개념 중 하나이다. 도드 역시 “온건한 동일론의 주장은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과 충돌하지 않[으며]”, “온건한 동일론은 진리 술어를 탈인용의 장치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당연히 인정한다.²⁵⁾ 게다가 탈인용 도식에서 ‘p’에 대입되는 사상들은 진리 동일론자

²⁵⁾ Dodd(2008), p. 120. 다만 탈인용 도식의 수용이 진리에 관한 특정한 견해의 수용을 암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레게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 문장 ‘나는 제비꽃의 향기를 맡는다.’는 문장 ‘나는 제비꽃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참이다.’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 속성을 귀속함으로써 사고에 보태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듯 보인다.” (Frege, 1918, p. 328.)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한 프레게의 견해를 동일론이나 축소주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온건한 동일론의 주장은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드가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는 다소 비약이 있어 보인다. 그 근거란, ‘p’라는 사상이 ‘<p>가 참이다.’와 같은 뜻을 가지며 내포적 맥락에서 손실 없이 상호 대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Dodd, 2008, p. 120.) 하지만 이는 도드나 프레게의 견해뿐 아니라 팽창적이건 축소적이건간에 진리에 관한 모든 견해가 공유하는 공통 전제이다. 따라서 이 근거만으로부터는 온건한 동일론이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들이 사실과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존재자이므로 (D)는 진리 동일론자들의 견해와도 잘 조화된다. 셋째, (D)의 ‘p’에는 뜻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 또는 사상이 대입되므로, 2절에서 도드가 강경한 동일론이 야기할 것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넷째, (D)는 동일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면제한다.²⁶⁾

그런데 (D)는 탈인용 도식이므로, (D)가 나타내는 ‘명제 <p>’와 ‘p’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명제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 관계에 관한 승인으로만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진리 대응론자들 또한 (D)를 명제와 사실 사이의 대응을 나타내는 도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응론 하에서도 “눈은 희다는 것은 참이다”와 “눈은 희다”는 손실 없이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D)는, 타르스키의 T-도식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리 정의(“그러하지 않은 것을 그러하다고 말하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고, 그러한 것을 그러하다고 말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것을 그러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참이다.”)²⁷⁾와 마찬가지로, 축소주의자들이 채택했을 때는 탈인용 도식으로 변형되지만, 거꾸로 팽창주의자들이 채택했을 때에는 진리 조건적 의미론에서와 같이 진리가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의 기초가 된다. 즉 (D) 자체는 진리와 사실 사이의 관계에 관해 중립적인 도식이다. 다만, 예를 들어 대응론자들이 (D)를 활용하려 한다면 (D)가 나타내는 관계가 대응 관계라는 단서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온건한 동일론자들에게 놓인 선택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 선택은 어떤 단서도 추가하지 않으면서 (D)를 자신들의 주장을 옳이 나타내는 표현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

²⁶⁾ Quine(1950) 참조.

²⁷⁾ Ross(1928), *Metaphysics*, Γ 7.27.

들이 의도하는 주장을 적절히 나타내게끔 (D)를 조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선택부터 살펴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D) 자체는 진리의 본성에 대해 중립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 관계는 축소적 진리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므로 축소주의가 틀린 견해인 오직 그 경우에만 (D)는 온전한 동일론의 주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다.

혼스비는 진리 축소주의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의 근거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²⁸⁾ 첫째, 축소주의자들은 진리가 어떠한 본성도 나타내는 술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혼스비에 따르면 이 주장은, 진리 술어는 명제에 부가되는 다른 술어들로부터 독립적인 적용을 가지는 술어가 아니라는 주장에 해당한다. 하지만 진리 술어는 명백히 독립적인 적용을 가진다고 혼스비는 단언한다. 둘째, 혼스비에 따르면, 우리는 진리 술어를 부가함으로써 이미 우리가 파악한 (accessed)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에 다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 축소주의의 주장이다. 이 주장을, 우리는 p에 진리 술어를 부가함으로써 즉 “p는 참이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함으로써 “p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한다면, 옳은 주장이라는 데는 혼스비도 동의한다. 그러나 혼스비는 축소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우리가 이미 파악한 사실들이 모든 사실을 소진한다는 명백히 틀린 주장으로 읽히기가 너무나 쉽다고 우려한다. 셋째, 축소주의자들은 진리가 논리적 장치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탈인용 도식의 예화들이 모두 주어진다 하더라도, 진리가 수행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에 대한 구분은 그로부터 얻어지지 않는다. 이는 진리 개념 안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무언가가 축소주의적 진리 개념에는 누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혼스비는 비판한다.

²⁸⁾ Hornsby (1997), pp. 20-22. 그리고 n. 23.

그러나 혼스비의 비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의 비판은 축소주의에 관한 잘못된 가정에 의존하고 있거나 혹은 논점선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비판을 보자. 가령 “사실과 대응한다”의 적용은 “참이다”의 적용에 의존하지 않는 반면에 “참이다”의 적용은 “사실과 대응한다.”의 적용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자. 그 가정 하에서라면, 우리는 아마도 “사실과 대응한다”와 달리 “참이다”는 어떤 본성을 나타내는 술어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참이다”의 적용은 다른 술어의 적용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참이다”는 어떤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이 혼스비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술어 “참이다”가 나타내는 본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그 술어가 “사실과 대응한다”라든가 “현재까지의 과학 탐구에 의해 높은 정도로 입증되었다” 등과 같은 다른 술어와 가지는 관계에 의해 규명된다는 전제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축소주의의 주장이 거짓임을 앞서 선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제는, (D)의 예화들에 나타나지 않는 여타의 속성들 가령 사실과 대응함 혹은 높은 정도로 입증됨 등이 관련된 어떤 관계에 관한 진술이 진리의 본성에 대한 규명에 반드시 포함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축소주의자들이 우리가 이미 파악한 사실들이 모든 사실을 소진한다는 명백히 틀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위험은, 만약 그런 오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우리가 이미 파악한 참인 명제 p 와 우리가 이미 파악한 사실 p 가 동일하다는 동일론의 가정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축소주의자들은 (D)를 사실과 진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간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D)의 오른쪽의 “ p ”를 “ p 는 사실이다”로 구태여 읽지 않는 한 혼스비의 우려는 기우에 그친다. 또한 세 번째 비판에서, 축소주의자들이 말하는 논리적 장치로서의 기능이란 표현적 기능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모든 문장은 참이다.” 와 같이 진리 표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다. 참과 거짓 사이의 구분은 그러한 표현적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축소주의자들이 진리의 설명적 역할을 포함하지 않는 나름의 방식으로 그 구분을 제공한다는 것을 혼스비는 간과하고 있다.²⁹⁾

혼스비가 내세우는 비판이 동일론자들이 축소주의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비판인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혼스비의 비판에만 논의를 한정해서 평가한다면, 우리는 축소주의가 충분히 만족스럽게 반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본고의 논의 안에서만큼은, 동일론자들이 첫 번째 대안을 선택하는 한, 진리 개념 안에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 관계는 포함될 수 없다.

혼스비와는 달리 도드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한다. 도드에 따르면 그가 받아들이는 형태의 축소주의는 온건한 동일론과 조화될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논의에서 축소주의는 워낙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탓에, 스스로 진리 축소주의를 옹호한다고 표방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많은 견해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드가 의도하는 축소주의가 어떤 주장인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가 받아들이는 형태의 축소주의는 아래의 (TD)로 표현된다.³⁰⁾

$$(TD) \quad \forall x(x \text{는 참이다.} \leftrightarrow \exists p(x = \langle p \rangle \wedge p))$$

여기서 x 에는 진리담지자가, p 에는 사실(“way that things are”)³¹⁾이 대입된다. (TD)가 일반적인 탈인용 도식과 가장 두

²⁹⁾ Horwich(1990), pp. 71–73, pp. 50–51.

³⁰⁾ Dodd(2013), p. 302.

³¹⁾ Ibid, p. 302.

드러지게 구별되는 부분은 존재양화사로 구속된 오른쪽 부분이다. 이를 통해 (TD)는 다음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진리담지자가 참이 된다면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그에 상응하는 사실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둘째, 더 중요하게는, 그 사실은 그 참인 진리담지자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TD)는 온건한 진리 동일론의 핵심 주장이 반영된 형태의 탈인용 도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도드는 우리가 (D)가 아닌 (TD)를 택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한다.³²⁾ 첫째, (TD)는 (D)의 예화들보다 더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D)의 어떠한 예화도 (TD)와 논리적 추론 규칙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드는 (TD)는 (D)의 각각의 예화들이 왜 참인가는 궁극적으로 (TD)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고 말한다. 둘째, 도드에 따르면 (TD)는 (D)가 해내지 못하는 설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것은 무엇이든 수용하려는 사람은 “만약 비트겐슈타인이 p라고 말했다면, p는 참이다.”의 예화들을 수용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례들과 (D)만으로는 어째서 그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모든 것은 참이다.”를 수용하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예화들의 집합으로부터 보편 일반화는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TD)는 이미 보편 양화된 도식이므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해낼 수 있다고 도드는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TD)가 온건한 동일론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TD)가 지닌 설명 측면에서의 두 가지 편리함은, 비록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TD)가 (D)에 비해 지닌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온건한 동일론자들이 (TD)를 채택한다면 그리고 만약 (TD)의 채택이 축소주의와 조화될 수 없는 주장에 대한 승인을 포함한다면, 그렇다

³²⁾ Ibid, pp. 302-303.

면 동일론자들은 왜 진리 개념은 마땅히 팽창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말해 진리 개념 안에 사실과 진리담지자 사이의 (사소하지 않은) 동일성 관계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TD)의 채택은 팽창된 진리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TD)에 포함된 존재 양화사는 참인 x 와 동일한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TD)를 통해 존재가 긍정되는 그 사실을 세계 안에 실재하는 지시체들의 복합체로 간주하든 아니면 그러한 지시체들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간주하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TD)에는 포함되지만 (D)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해 온건한 동일론자들은 진리 담지자와 사실은 결국 동일하므로, (TD)에서 긍정되는 존재자는 진리 담지자 이상의 무언가는 아니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온건한 동일론자들이 사실의 존재에 대해 축소주의자들과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도드가 내세우는 두 가지 설명적 편리함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들이 (D)가 아닌 (TD)를 굳이 채택해야 할 이유는 희박해진다. 더구나 진리 담지자와 참인 사상이라는 두 대상 사이의 동일성 관계에 대한 주장은 동일론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러므로 (TD)는 사실의 존재에 대한 긍정뿐 아니라 바로 그 존재와의 동일성 관계가 진리담지자의 참임에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논제로 간주되어야 적절하다. 하지만 축소주의자들은 바로 그 논제를 거부한다. 일례로 최소주의자인 호리치는 설령 프레게적 명제는 프레게적 사실과 동일하다는 진리 동일론의 논제를 가정하더라도, (D)의 개별 예화의 설명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논증한다.³³⁾ 이와 같이 축소주의자들은 (TD)가 축소주의의 생각을 표현하는 적절한 형식화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³³⁾ Horwich(1990), pp. 105-107.

따라서 (TD)로 표현된 온건한 동일론의 진리는 팽창된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귀결은 진리 동일론자들이 풀어야 할 다음의 과제 즉, 대응론적 구도의 반박과 팽창적 진리 개념의 옹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야 할 과제로 이어진다. 이 과제는 달리 말하면, 진리 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 관계는 사소하지도 축소적이지도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의미에서도 대응 관계도 아님을 보이는 작업에 해당한다.

4. 맺는 말

진리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닌 진리 개념과 일치하는 면도 있고 어긋나는 면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온건한 동일론이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 의문이 남는다. “사실은 곧 참인 사상이다.”라는 통찰은 사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좋은 답변이다. 그러나 같은 통찰이 곧장 진리의 본성에 관한 답변도 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것 같다.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가령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은 명제가 참일 때 그 명제가 가지는 속성이 대체 무엇인지 또는 그러한 명제의 참임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참인 명제가 나타내는 바는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관심 초점을 비껴가는 답변이다.

그러나 본고의 결론이, 진리 동일론은 사소하든 강경하든 온건하든, 결국 지탱될 수 없는 견해라는 결론에까지 다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론자들이 택할 수 있는 전망은 온건한 동일론 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본고는 해명했다. 이로부터 본고가 도출한

귀결은, 온건한 동일론 앞에 놓인 두 가지 갈림길 중 한 길을 선택 하면 축소주의적 진리 이론 대신에 온건한 동일론을 선호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하면 팽창되었지만 대응적이지는 않은 진리 개념을 명료화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명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진리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지니는 속성이지만, 그 속성은 세계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 가지게 되는 속성이라는, 진리가 지닌 일견 상반되는 두 측면에 대한 한 가지 만족스러운 설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설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진 진리 개념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진리담지자와 진리확정자 사이의 간극이라는 오랜 난제를 해명하는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리담지자와 사실 사이의 동일성 관계에 얽힌 이 과제는 해답을 모색할 가치가 있다.³⁴⁾

34) 상세하면서도 신랄한 심사평을 보내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송구스럽 게도 필자는 그 모두를 빠짐없이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본고를 더 나은 후속연구를 위한 과정으로 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 Davidson, D. (1983), “A Coherence Theory of Truth and Knowledge”,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pp. 298-322.
- Dodd, J. (1999), “Hornsby on the Identity Theory of Truth”,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New Series, Vol. 99, pp. 225-232.
- Dodd, J. (2008), *An Identity Theory of Truth*, Palgrave Mcmillan.
- Dodd, J. (2013), “Deflationism Trumps Pluralism!”, in Pedersen, N. J. L. L. and Wright, C. D. (eds.), *Truth and Pluralism: Current Debates*, Oxford University Press.
- Engel, P. (2002), *Truth*,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Frege, G. (1892), “On Sinn and Bedeutung”, in Michael Beaney (ed.), *The Frege Reader*, Blackwell, 1997.
- Frege, G. (1918), “Thoughts”, in M. Beaney (ed.), *The Frege Reader*, Blackwell, 1997.
- Gaskin, R. (2016), “The Identity Theory of Truth”,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URL=<<https://plato.stanford.edu/entries/truth-identity/>>.
- Horwich, P. (1990), *Truth*, Clarendon Press: Oxford.
- Hornsby, J. (1997), “Truth: The Identity Theory”,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Vol. 97, pp. 1-24.
- Hornsby, J. (2008), “Truth without Truthmaking Entities”, in H. Beebe and J. Dodd (eds.), *Truthmakers: The Contemporary Debate*, Clarendon Press: Oxford.

- Kirkham, R. L. (1995), *Theories of Truth: A Critical Introduction*, The MIT Press.
- McDowell, J. (1994), *Mind and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e, W. V. O. (1950), “Identity, Ostension, and Hypostasis”,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pp. 65-79.
- Rodriguez-Pereyra, G. (2008), “Why Truthmakers”, in Beebe, H. and Dodd, J. (eds), *Truthmakers*,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W. D. (ed.) (1928), *The Works of Aristotle Translated into English*, Oxford: Clarendon Press.
- Wittgenstein, L. (1922), *Tractatus-Logico-Philosophicus*, Routledge.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

kdh@ut.ac.kr

On Identity Between Truth Bearer and Fact

Donghyun Kim

The identity theory of truth insists that a truth bearer is identical with a fact. First, I will consider how we can make the thesis intelligible. For this, I classify the identity relation which the identity theory discusses into two kind; trivial and non-trivial relation. And I show that the trivial one is not adequate to be qualified to be applied to the identity theory. The non-trivial relation can be adopted in robust or modest way. I argue that the robust kind of identity theory is incoherent itself. Then, I explain why we should compare the modest identity theory with the deflationism. From this comparing, I will draw the consequence that two choices are left to the modest theory. If they choose one way, there is no reason for us to prefer the identity theory to deflationism. On the other hand, in case that they choose the other way, I argue what kinds of interesting problem is left to be solved by the modest theorists. Finally, I will evaluate the limit and prospect of the result of the problem in case that the identity theorists achieve their goal.

Key Words: The identity theory of truth, Dodd, Hornsby, Thought, Deflationary truth.